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1 출장 개요

출장목적

- APEC 보건실무그룹회의 및 보건경제고위급회의 참석 및 지원

과제명

- [수탁24-007-00] 2024 글로벌 보건복지 이슈 분석을 통한 효과적 대응방안 마련

출장기간

- 2024.08.14. ~ 2024.08.20.

출장국가(도시)

- 페루(리마)

출장자

- 국제협력단 신윤정 단장, 이상원 연구원
* 한국 대표단 보건복지부 장은섭 국제협력담당관 외 6명 출장 계기 동행

일정요약

일자	국가(도시)	방문기관	면담자	주요 활동상황
8.14	페루(리마)			출국 및 현지 도착
8.15	페루(리마)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	APEC 회원국	“여성의 건강” 정책대화
8.16	페루(리마)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	APEC 회원국	보건실무그룹회의 1일차
8.17	페루(리마)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	APEC 회원국	보건실무그룹회의 2일차
8.18	페루(리마)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	APEC 회원국	보건경제고위급회의
8.20	한국(인천)			현지 출국(8.18.) 및 귀국

2 출장 주요내용

①	출국 및 현지 도착
일 시	8.14.(수) 9:00~
장 소	인천국제공항 / 페루 리마 공항
참석자	
	○ KE0035 인천-아틀란타 8.14. 09:20 10:10 ○ KE7287 아틀란타-리마 8.14. 15:35 21:05
②	정책대화
일 시	8.15.(목) 8:30~12:15
장 소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 Lima 2
참석자	APEC 회원국, APEC 사무국, 국제기구 등
<p>1. 개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사 (Alberto Tejada, HWG 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국 대표단들을 환영하며 본 정책 대화에 적극적 참여와 결실 있는 논의에 대한 기대를 표함 <p>2. 여성의 건강 우선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태국, 한국, Access Partnersh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설자들은 여성의 건강 우선순위와 관련된 민관협력을 포함하여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성과 건강의 상호작용 및 다 부문에 걸친 인식 제고에 대한 노력 강조 ○ APEC은 여성의 잠재력 실현을 위해 보건실무그룹(HWG), 여성과 경제정책 파트너십(PPWE), 인적자원개발실무그룹(HRDWG) 등 산하 회의 및 타 그룹과의 협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회원국 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과 민관협력의 중요성과 지속성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 아태지역 회복력 있는 역동적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2025년 APEC 보건 분야 3개의 주제 초안을 설명하며 APEC 역내 협력에 기대를 표함 - Access Partnership은 여성 건강 정책 대화 등 2024 APEC 부대 행사 개최를 통해 여성의 건강을 개선하고, 경제 참여 및 기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언급 <p>3. APEC 스마트 가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학적 회복력을 위한 정책 실현: 가족과 출산의 균형 (페루 보건부 차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EC 회원국 및 그 외 지역의 정부, 국제기구, 학계, 민간, 시민 사회에게 가족계획과 출산 계획에 대 	

한 생애 주기 접근 방식을 지원하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 강조

□ 패널 1. 가족 및 출산 계획의 실현 정책 (태국, 한국, 칠레, 베트남)

- 패널은 가족 및 출산 계획의 정책과 관련된 모범사례와 사회의 관점을 공유하며 ① 지역 및 다분야 협력 강조 ② 정부, 국제기구, 학계, 민간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 강조

- 한국은 자국의 저출산 심각성을 설명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및 각계각층이 합심하여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노력하며 비용 지원, 상담 서비스, 지원사업, 육아휴직 제도 강화 등 정책 소개

□ 패널 2. 여성의 경제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건강 접근성: 청소년 임신 문제 해결 (페루, LATAM Cluster)

- 패널은 여성의 경제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건강 접근성과 관련하여 청소년 임신 문제와 관련된 사안들을 언급함. 특별히 라틴 아메리카의 청소년 (15-19세) 출산율은 전체 출산율의 16%에 달함을 설명하며 청소년 출산율의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 부문 대화 (multi-sectoral dialogue) 강조

□ 패널 토의

- PPWE 의장은 청소년 여성들의 상황을 주시하고 이들의 의견수렴과 반영 강조. 또한 통합적 접근 방식을 강조하며 APEC 내 타 그룹과 협력하여 세계적 장벽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의 중요성 강조
- 유엔인구기금(UNFPA) 페루는 회원국 및 관계자들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하며 UNFPA 또한 청소년 출산 문제를 중요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 협력 촉구

4. 모두를 위한 공평한 의료서비스 보장

□ 모두를 위한 의료서비스 보장 (페루 보건부 차관)

- APEC 경제 전반에 걸쳐 여성의 잠재력을 억제하는 건강 격차에 관해 설명하며 여성의 건강, 형평성, 자율성을 제고하는 혁신적인 건강 재정 전략 수립을 통해 건강 솔루션을 확장의 중요성 강조

□ 패널 토의 (달로이트 파트너, Organon 관계자 등)

- 패널은 모두를 위한 공평한 의료서비스 보장의 달성과 관련하여 개입(intervention)의 문제를 언급. 재정적 지원의 주의점과 관련하여 본 정책 대화 같은 많은 대화를 통해 지속적인 관계 형성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 또한, 정책 입안자, 재무부 등의 기관들에 대해 투자에 대한 이해 제고와 개입 지속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숙련된 기술자 양성 및 역량 강화의 중요성 또한 강조

③	보건실무그룹회의 1일차
일 시	8.16.(금) 9:00~17:30

장 소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 Lima 1
참석자	APEC 회원국, APEC 사무국, 국제기구 등
<p>1. 개회 및 의제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영사 (Alberto Tejada, HWG 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한 회원국들을 환영하며 의미 있고 결실 있는 회의에 대한 기대를 표하며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논의 촉구 <p>2.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 리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국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콜롬비아가 3년간 옵저버 국가로 참여함을 안내 ○ 미국과 중국 등은 self-funded project를 통해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짐을 언급 ○ 규제조화운영위원회 [Regulatory Harmonization Steering Committee (RHSC)]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6월 APEC LSIF의 후원으로 설립된 APEC 회원국의 규제 기관, 산업 및 학계의 규제 전문가 네트워크로 새로운 지침 개발이 아닌 다른 지역 국제 규제 이니셔티브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 □ 제1차 보건실무그룹회의 결과 요약본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 조화, 지역 사회 정신건강, 성 평등, 원헬스, 기후변화와 건강 등의 안건 포함 ○ 정신건강, 디지털 헬스, 백신 접종을 위한 보건실무그룹의 하위 작업반들의 연말 보고 예정임을 안내 <p>3. HWG 프로젝트 요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건강 하위 그룹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루의 포용성에 대한 강조에 따라 2019년에 출범하여 정신건강 접근성 보장 및 생산적이고 건강한 사회를 육성하기 위한 ①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의 건강 데이터 디지털화 ② 전문화된 지역 사회 정신건강 모듈 강화를 목표로 함 □ 디지털 헬스 하위 작업 그룹 (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이후 APEC 역내 건강 형평성 촉진을 위한 원격의료 활용에 관한 연구 발간하였으며 도전과제로는 원헬스, 디지털 헬스, 사례 연구임을 소개 ○ 2020년 출범하여 2020~2023년 4번의 정책 대화 주최하였으며 올해 11월 정책 대화 주최 예정임을 안내 □ 예방 접종 하위 작업 그룹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미국과 캐나다는 SOM1 기간 동안 예방 접종 관련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의 지 	

속적인 위협에 맞서기 위해 예방 접종 정책 대화를 주최하여 APEC 역내 개발, 구현, 예방 접종을 촉진할 방법 모색

□ 논의 및 다음 단계

○ 캐나다 (공동의장) 발표

- 예방接种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8개 회원국이 제출한 성공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이 담긴 예방接种 스포트라이트 보고서와 관련된 회원국 설문 응답을 소개함. 설문은 3C 프레임워크(Confidence, Complacency, Convenience) 기반 설문임을 소개

○ RHSC (Regulatory Harmonization Steering Committee) 발표

- 6개 분야에서 활동함을 발표하며 올해 7월 싱가포르에서 대면 회의 주최하였으며 로드맵 승인
- 향후 계획으로 SOP 및 로드맵 개정이 있으며 내년도 APEC 의장국인 한국과 타 회원국과의 협력에 대한 기대 포함

4. 기후변화가 보건에 미치는 영향

□ 아메리카의 뎅기열 예방 및 통제를 위한 통합된 관리 전략 (Maureen Birmingham, PAHO)

- 2024년 미주에 뎅기열이 급증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6개의 기술적 구성 요소로 구성된 관리 전략 소개

□ 뎅기열 대응 격차 (Adrienne Mendenhall, CMI)

- 사회적 불평등이 뎅기열 대응 격차에 큰 영향을 끼침을 언급하며 전통적인 뎅기열 통제 방식을 뛰어넘어 현대적 방식 적용의 중요성 강조
- 6개 회원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의 뎅기열에 대한 정책, 자금 및 프로그램 분석을 통한 주요 결과 및 대응 사례 소개

□ 공중보건 비상사태 (Eric Peña, 페루 보건부 차관)

- 뎅기열로 인한 사망률 (mortality rate) 증가에 대한 문제와 대응 전략으로 지자체와의 협력의 중요성 강조

□ 국가 뎅기열 전략 (인도네시아)

- 2030년까지 뎅기열 사망자 0명을 달성하기 위한 인도네시아의 국가 뎅기열 전략을 발표하며 지역 사회 참여 및 기술 협력 강조

□ 뎅기열 예방 및 통제에 대한 싱가포르의 경험 (싱가포르)

- 자국에서 뎅기는 엔데믹으로 분류됨을 언급하며 통제 방식으로 ① 보건부에서 감시 (surveillance) ② 벡터 제어 (vector control) ③ 예방接种을 소개함

□ 뎅기 예방 및 통제를 위한 혁신 (미국)

- 뎅기는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설명하며 통제 방식으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막중한 역할 소개, 명확한 이니셔티브 설정, 통합적 접근 방식 강조
- 2023 대만의 뎅기열 예방 및 통제 경험 (대만)
 - 뎅기열은 엘니뇨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설명하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헬스케어의 회복력, 적응력 등을 언급
 - 2025년 4월에 APEC 컨퍼런스 주최 예정임을 안내하며 회원국들의 참여 요청
- 필리핀
 - 올해 현재까지 195,000건이 확인되었고 4S 뎅기 캠페인 (Search and destroy, Secure self-protection, Seek early consultation, Support fogging or spraying) 소개
- 기후 및 보건 금융 (IFC)
 - 우선순위 선정 및 공공과 민간 부문의 협력 강조
- 국별 발언
 - 베트남은 열대 지역에 있는 국가로 뎅기, 설사 등 전염병에 취약한 점을 언급하며 국제기구와의 기후 변화와 관련된 역량 강화 및 국가 연수 패키지 완성 등의 정책 및 프로그램 소개
 - 말레이시아는 보편적 의료보장, 예방, 조기 발견 및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헬스케어 비용 증액 등의 내용을 발표
 - 한국은 해외 유입 뎅기열 환자 증가 등을 위한 예산 증액 및 현장신속검사, 신규 플랫폼 및 면역원성 시험법 및 표준 동물모델 확립을 소개하며 기후 취약 지역 발굴 및 국가 간 정보공유, 글로벌 공동 계획에 대한 지원 및 협력 의지를 표명
 - 칠레는 감시 (surveillance)와 환경적 요인에 대한 통제의 중요성 강조
 - 대만은 AI 기반 뎅기 예방 및 통제 내용 소개
 - 미국은 감시 도구 및 시스템, 디지털 도구 활용, 보편적 의료 보장 프레임워크, 혁신적 금융 메커니즘 등에 대한 협력을 강조
 - 일본은 미국의 보편적 의료보장을 지지하며, 기후변화가 끼치는 부정적 영향들을 언급하며 보편적 의료보장의 중요성 재차 강조
 - 브루나이 다루살람은 자국 내 예방과 통제의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며 부문 간 (cross-sectoral) 협력 강조
 - 콜롬비아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APEC 역내 협력에 대한 기대 표명 및 촉구
 - 호주는 공항과 항만에서 해외입국자들에 대한 고강도의 검사가 이뤄짐을 소개하며 보편적 의료보장에 대한 지지 표명
 - 중국은 뎅기 위험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 대상으로 검사와 감시 내용 발표

5. 의학과 접근

- 민간 부문의 역할 (ALAFARPE)
 -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달성하기 위한 다섯 가지 방법 발표
 -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 접종, 부작용 보고, 자가 치료 기피, 올바른 의약품 구입, 예방 문화 장려
- 국별 논의
 - 인도네시아는 지리적 문제가 접근성 문제를 초래함을 설명

6. 자궁경부암 퇴치 달성

- APEC에서의 자궁경부암 퇴치 달성 (미국 NCI)
 -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자궁경부암 이니셔티브를 지지해 준 실무그룹에 감사를 표하며 모범사례 공유 등을 통하여 긴밀히 협력
 - 예방 접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훌륭한 치료법을 사용하는 데에도 격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다른 회원국의 사례를 점진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발표
- 페루의 90-70-90 강화 (페루 보건부)
 - 자국의 자궁경부암 백신 정책 소개하며 WHO의 90-70-90 달성을 위한 노력 강조
- 인도네시아의 자궁경부암 퇴치 로드맵 (인도네시아)
 - 코로나 발병 시 ① 백신 확보 ② 경제 회복 ③ 중점 분야를 강조
- 자궁경부암 발병률 감소를 위한 대만의 경험 (대만 보건부)
 - WHO의 90-70-90 목표 달성을 위한 대만의 노력 공유
 - 2018년 HPV 백신, 2025년 3월 컨퍼런스 주최 예정
- 자궁경부암 퇴치를 위한 포괄적 접근법 현장 (필리핀 보건부)
 - 신형 기술을 통한 검진-치료 서비스 소개 및 예방과 조기 발견 등 암 통제에 대한 통합적 방식 강조
- 국별 발언
 - 한국은 HPV 예방 접종의 이점 및 지원 정당성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를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소개하며 APEC Vaccine Task Force(VTF) 등 공공-민간 부문의 협력을 통해 APEC 회원국 간 상호보완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저소득 국가들이 HPV 백신 도입과 학교 내 접종 사업 등을 실행하도록 충분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힘
 - 베트남은: HPV 예방 접종 지지하며 지역 예산을 마련하는 데 있어 정부의 적극적 지원의 필요성 강조
 - 콜롬비아는 예방 접종, 역량 강화, 치료를 위한 접근성의 중요성 강조

- 캐나다의 우선순위는 인식 제고, 공평한 HPV 구현, 검진 및 데이터 수집과 같은 조치로 지원됨을 소개하며 캐나다 암 퇴치 파트너십 (CPAC)의 암 관리 전략을 평가하는 무료 웹 기반 시뮬레이션 도구인 OncoSim 소개
- 브루나이 다루살람은 APEC 자궁경부암 로드맵 지지하며 로드맵 갱신 지지 표명
- 말레이시아는 회원국 간의 데이터 공유 및 접근 방식 보장, 건강 형평성 강화,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촉진의 중요성 강조
- 미국은 재정 및 교육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예방 접종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 지원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 또한 정책 입안자들의 예방 접종에 대한 명확한 인식 제고와 민관협력의 중요성 강조. WHO 2030 가이드라인 포함할 것을 지지
- 일본은 재무부와 보건부의 협력 강조

7. 제14차 APEC 보건경제고위급회의 공동선언문

8. 생애주기 통합 케어

- 다음 세대들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방법 (일본)
 - 예방 접종 격차 해소를 위해 국민의 인식 제고 노력을 소개하며 정부, 지역 사회,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 강조. 또한 예방 접종 개선과 관련된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발표
- 예방적 헬스케어 (페루 EsSalud)
 - Prevenir EsSalud 소개 (전략, 이해적 접근 등을 포함)
 - 구체적 목표는 위험 요소 파악, 적시의 진단 제공, 기업의 보건 증진에 대한 이해 제고, 치료의 지속성을 위한 기여 등을 포함
 - 개입의 속성으로 통합적 케어, 고용주와의 전략적 연대, 원격 진료, 주기적 모니터링, 기업 내 보건 담당자와의 네트워크 형성
 - 통합 플랫폼은 ① 보건 증진 ② 검사 ③ 케어 경로 ④ 보완의학 접근으로 구성
- 노인을 위한 헬스 프로모션 (태국)
 - 태국의 노인 인구가 1,300만으로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화 현상 공유
 - 노인을 위한 원활한 헬스케어로 노화 전, 건강 노화, 병든 노화, 의존 노화인 4개 단계로 설명
 - 개인 기술 개발의 중요성, 지역 사회 행동 강화, 재조정된 보건 서비스 시스템 강조
- 생애 주기 면역 (APEC Vaccines Task Force)
 - 코로나19 영향으로부터 예방 접종률은 증가하고 있는 현상 공유

- 예방 접종이 안전하고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에 대한 신뢰의 중요성 강조
- 지역의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를 통한 인식 제고 권고
- 국별 발언
 - 한국은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노력과 국가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부터 성인까지 필요한 예방 접종을 국가 주도로 제공함을 안내함
 - 미국은 젊은 세대를 위해 학교 중심으로 예방 접종과 노인을 위한 예방 접종 프로그램에 더욱 집중하여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 시스템의 부담을 줄여야 함을 권고. 또한 회원국들이 사회 건강 보험 프로그램에 포괄적인 예방 접종 범위를 포함시켜, 재정적 장벽으로 인한 접근성에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 말레이시아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은 예방 접종과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으며 디지털 헬스 기술을 활용하여 시기적절하고 완전한 면역 접종 범위를 보장하고 협업 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설명
 - 칠레는 보편적 건강 접근 및 프로그램을 통해 질병 예방 및 통제를 강화의 필요성 강조
 - 중국은 모든 정책에 건강을 통합하고자 하는 노력과 전자 건강 기록 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개인의 건강정보를 평생 동안 문서화하여 더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 러시아는 보고 및 접근성 의료, 전송, 의료 전환, 치료 및 검증 등의 개선하려는 조치사항 소개
 - 캐나다는 예방 접종에 대한 명확한 전략과 건강한 노화를 요구하는 데 지원의 필요성 강조
 - 인도네시아는 강력한 모자 건강 서비스 보장의 필요성과 포괄적인 유지 관리의 필요성 강조
 - 대만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9가지의 정기 예방 접종을 제공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입학에 위한 예방 접종도 제공하고 있음을 소개하며 건강과 웰빙에 있어서 예방接种의 이점을 강조

9. 보건 인력 강화

- WHO
 - 국가 보건 인력 계정 (NHWA) 소개: 데이터 과정 및 활용 및 데이터 분석 강조
 - 보건 인력의 10%가 그들의 출생 국가가 아닌 타 국가에서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간호사임을 소개
- 보건 인력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 강화(캐나다)
 - 95,000여 명의 보건 인력에 대한 공백과 보건 인력의 연장 근로가 늘어나고 있음을 소개
 - 의료 인력의 정신건강 및 웰빙 개선 정책을 발표
 - FPT 보건부 장관의 공약과 Nursing Retention Toolkit 소개

□ 국별 발언

- 필리핀은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교육의 중요성과 전문가들의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
- 미국은 지속적 교육, e러닝 등을 통해 보건 인력 역량 강화의 중요성 강조. 또한, 기술을 통한 보건 시스템 통합에 전념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대상이 디지털 솔루션을 탐색하고 도입되도록 장려하고 보건 인력에 대한 지원을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
- 한국은 인구고령화, 만성질환 관리 수요 증가 등 현재 또는 미래 예상되는 의료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2025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소개하며 및 보건인력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함
- 인도네시아는 APEC 회원국들의 성공적인 이니셔티브 교류 등을 통해 협업의 중요성, 전략적 접근 방식, 디지털 플랫폼 활용,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 제고 및 협력 강조
- 태국은 정신건강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의 필요성 설명 및 강조

10. 폐회

□ 페루 의장

- 회원국들의 적극적 참여에 사의를 표함

④	보건실무그룹회의 2일차
일시	8.17.(토) 9:00~16:00
장소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 Lima 1
참석자	APEC 회원국, APEC 사무국, 국제기구 등

1. 개회

□ Alberto Tejada (HWG 의장)

- 1일차 회의에 대한 적극적 참여에 사의를 표하며 금일 회의에서도 결실 있는 회의에 대한 기대를 포함

2. 건강한 경제를 위한 지역 정신건강

□ 페루 보건부

- 자국의 292개 정신건강 센터와 92 shelter home 등 지역 정신건강 증진의 필요성 강조
- 정신건강에 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며 수도인 리마에 중점적으로 투여되고 있음을 설명

□ 싱가포르 보건부

- 특별히 젊은이들의 정신건강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들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의 필요성 강조
- 통합된 방식으로 지역 사회와 글로벌 사회 강화 권고
 - ① 정신건강 서비스 역량 확대 ② 서비스 제공자의 조기 식별 및 개입 역량 강화 ③ 정신건강 기술 촉진 ④ 직장에서의 정신건강과 웰빙 개선
- 대만
 - 최신 시스템 구축, 병원 시스템의 자원을 확대하여 정신건강 관리 자산 확대의 필요성 설명
 - 정신건강은 보편적 인권임을 언급하며 부처와 민관협력의 중요성 강조
- APEC 정신건강 디지털 허브
 - 2021년에 2021-2030 로드맵을 갱신하였으며 금년도는 중간 단계에 있으므로 회원국들의 수행 활동에 대한 점검 및 검토의 필요성 언급
 - 주요 활동: 정신 e-건강을 포함한 청소년의 회복력 증진, 청소년의 정신적 웰빙을 증진하기 위한 생활 기술과 자기관리 기술
- 국별 발언
 - 회원국들은 자국의 지역 정신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지역 정신건강이 역내 주요 사안임에 공감하였으며, 이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함
 - 필리핀은 지역 사회 수준 서비스에서 정신건강 서비스에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설명하며 이해 관계자와 연구, 역량 강화, 기술 지원 등의 협업 강조
 - 캐나다는 지역 사회 기반의 정신 건강 관리를 우선시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관리를 돕고자 새로운 기금 출범 소식을 소개
 - 베트남은 정신건강을 법률 및 정책에 포함시키고 인식 제고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며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사회 정신건강 작업을 시행함. 산업 수입, 정부 및 타 금융기금, 사회 조직의 학제 간 조정 개선의 필요성 강조
 - 미국은 포괄적인 정책과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건강 관리 강화를 우선시.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는 낙인을 줄이고 개인이 도움을 구하도록 장려하는 데 매우 중요함을 설명. APEC 회원국들에게 모범사례를 공유하여 건강하고 번영하는 사회에 기여하는 회복성 있는 정신건강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장려
 - 호주는 사회적 포용 지원사업과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 계획을 수립하는 데 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소개하며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요구에 적응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의 필요성 언급
 - 중국은 정신건강 관리와 서비스에 대한 정책 교류와 실질적인 논의, 진단 및 치료 기술의 진보를 촉구

- 한국은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청년 정신건강 리더 양성을 위한 '영마인드 링크' 사업과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지역 사회 재활기관 등에 종사하는 정신건강인력 직무역량교육강화 등을 발표하며 정신 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과 전략들을 APEC 회원국들과 공유하기를 희망함을 밝힘
- 콜롬비아는 정신건강의 예방 및 증진을 위해 정책 업데이트, 의료 종사자를 위한 사회적 재활 사이트의 적용 범위 확대 등을 권고
- 태국은 지역 사회 기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예방, 조기 개입을 촉진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여 지역 사회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을 개선함. 역내의 더욱 폭넓은 협력과 대화를 통해 지역 사회 정신건강에 대한 전략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을 개선의 필요성 강조
- 인도네시아는 모두를 위한 접근성 보장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지역 사회 기반 접근 방식 강조
- 말레이시아는 모든 공중 보건 전략에서 정신건강이 핵심이 되어야 함을 설명하며 APEC 역내 정신건강 관리 제공자 및 전문가 간 네트워킹을 통해 협력의 필요성 강조
- 브루나이 다루살람은 웰빙과 집중을 통해 정신건강이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

3. 보건 의료 시스템 내 전통 의학

- 중국 헬스케어 시스템 내 침 요법의 역할 (중국)
 - "TCM"이라고도 하는 중국의 고대 전통 의학 체계는 수천 년에 걸쳐 개발됨
 - 중국 전통 의학은 수백, 때로는 수천 년에 걸쳐 중국에서 발전해 온 다양한 의학적 치료와 관행을 포괄하는 용어이며 건강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 방식을 취함. 이는 질병의 특정 증상을 개별적으로 치료하는 대신 신체 전체를 살펴보고 질병의 근본 원인을 식별하기 위해 노력
- 토착민에 대한 보건 전략과 보건 시스템 내 통합적 접근 (페루 보건부)
 - 원주민을 위한 건강 전략 소개하며 문화간 접근 방식 장려함을 강조
- 페루의 사회보장 보건 시스템 내 필수 의학의 역할 (EsSalud)
- 국별 발언
 - 회원국들은 자국의 전통 의학 관련 내용들을 소개하고 회복력 있는 보건 시스템을 위해 전통 의학 지식의 보존에 대한 적극적 장려의 필요성을 강조함
 - 필리핀은 전통 및 대체 의학 분야에서 풍부한 역사를 가진 PTA에 규제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타마법 (Tama law)을 확대하려 하고 있으며, 의료 시스템에 통합하기 위한 과학 연구 투자 필요성 설명
 - 칠레는 약초의 사용을 장려하며 약초는 전통 의학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가족과 지역 사회에서 자율적으로 또는 기존 치료법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최초의 치료적 자원 중 하나임을 소개. 침술, 자연 요법, 동종 요법과 같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다양한 지역의 치료 관행은 전통 의학의

일부 구성 요소를 점진적으로 통합 및 도입됨을 설명

- 베트남은 국가 의료 시스템 내에서 전통 의학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촉진 촉구. 특히 전통 의학에 기반한 가장 보편적인 서비스 유형을 파악해야 하며 각 회원국의 법률과 조건에 따라 전통 의학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과 규정을 보건 규정의 틀 내에서 개발을 강조
- 말레이시아는 통합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데 주력해야 하며, 전통 의학 관행의 안전성, 효능 및 평등을 보장하는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 확립의 필요성 강조
- 미국은 전통 의학과 현대 의료를 조화시켜 보완하고 치료 결과를 향상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식으로 전통 의학 통합의 필요성 언급. 또한, 회원국과 협력하여 전통 의학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지원하는 연구 결과, 모범사례 및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유할 것을 표명
- 콜롬비아는 국제 수준에서 정책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가의 보건 시스템과 서비스에 전통 의학과 보완의학을 적절히 접목하고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구의 필요성 강조
- 태국은 전통 의학을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통합하여 의료 시스템을 모델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전통 의학이 현대 의학을 보완하고 의료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을 언급
- 일본은 자국의 보건노동복지부가 전통 의학과 보완의학의 통합을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의학적, 과학적 증거에 근거하여 통합의학의 발전 강조
- 인도네시아는 명확한 틀을 제공하기 위해 건강 평가 정책과 규정 개발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전통의학을 글로벌 시스템에 통합하는 강력하고 다양한 방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연구 투자의 필요성 강조
- 대만: 전통 의학을 의료 시스템에 계속 통합해 나갈 것이며, 변화에 보다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기대 표명

4. 보건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시장의 역동적인 생태계 (Krishna Udayakumar, 듀크대학교)
 - 요구와 격차를 해소하는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end to end 접근 방식. 시장이 없거나 제공 능력이 없는 제품을 개발하지 않고 재정적 솔루션이 없는 프로그램을 구축하지 않아야 함.
 - 각각의 타임라인을 9~10개월씩 단축하고 경제와 건강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
 - 연구 개발 경로를 살펴보고 더 강력한 기술 혁신으로 이어질 공공 및 민간 부문 지식 공유 및 파트너십의 방법 모색
 - 지역별 임상 시험 네트워크와 센터, 데이터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증거 생성 고려

- 새로운 제품을 보다 효과적으로 출시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서 연구를 시급히 강화할 수 있는 자금 조달 메커니즘 구축

□ 라틴 아메리카 내 질병의 사회경제적 부담 (Dennis Ostawld, WfOR Institute)

- 보건을 거시적 분야이자 세계 경제의 안전장치로 여겨야 함을 강조
- 사회경제적 부담은 경제적인 측면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수치와 함께 사회경제적 부담을 고려의 중요성 강조

□ 글로벌 헬스 R&D 생태계 구축 (Ernesto Ortiz, 듀크대학교)

- 인공지능을 통해 약물 발견, 전임상 연구, 글로벌 건강 연구 개발, AI 기반 기업의 학생 투자 등에서 AI의 상당한 효율성과 이점을 활용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중·저소득 국가가 AI 기반 연구 개발에 참여하고 역량과 전문성을 구축할 수 있음을 설명
- 전염병과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AI의 사용을 확대해야 하며, AI 도구를 사용하여 예측 및 개발의 필요성 설명. AI에 대한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 강화 필요성 강조

□ 보건 투자 예방 전략의 핵심 요소 (Francisco Becerra, 플로리다 국제 대학교)

- 중장기 전략과 연구 및 혁신을 지원하는 방법 모색 필요성 설명
- 연구 개발과 혁신, 백신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해야 함을 강조

□ 국별 발언

- 다수의 회원국들은 건강 부문에 투자하는 것이 경제 성장과 안정을 촉진한다는 것에 동의
- 필리핀은 품질 개선의 촉진 보장, 정부가 건강 보호 메커니즘을 관리하는 데 있어 자율성 보장, 지속적이고 일관된 건강 분야 투자 보장을 위한 조치의 필요성 강조
- 미국은 주요 전략으로 공공 보건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투자, 의료 접근성 확대, 의료 인프라 개선이 포함됨을 설명하며 팬데믹 펀드 등에 대한 투자와 민관협력 강조
- 한국은 보건 영역에 대한 투자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설립 및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RIGHT) 재단 설립 등을 소개하며 민관협력 및 국제협력 파트너십 구축의 경험을 APEC 회원국들과 공유할 것을 표명
- 중국은 높은 수준의 의료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도시형 맞춤형 상업 의료 보험을 개발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국가 면역 프로그램 강조
- 인도네시아는 경제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예방적 건강 관리 도구로서의 백신 접종을 촉진하기 위한 다른 정책의 필요성 설명. 국가적 예방 접종 프로그램, 인식 제고 캠페인, 백신 생산을 위한 규제 지원 등을 설명
- 페루는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정량화하고 건강에 대한 투자 증가를 옹호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임을 소개

- 태국은 APEC 역내 민관 파트너십 협력을 촉구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공공, 민간 정책을 촉진할 것을 강조

5. APEC 2025: 한국의 보건분야 우선순위

□ 2025 APEC 보건분야 주제 및 우선순위 초안

- 상호연결성(interconnection) 증진을 통한 미래 팬더믹 대응
 - ① 제약·바이오 민관 파트너십 및 공급망 강화 ② 의약품, 백신, 의료기기 등 혁신 및 글로벌 협력 ③ 미래 팬더믹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
- 모든 사람을 위한 혁신적(innovative) 보건 서비스 : 디지털과 건강
 - ①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한 디지털 헬스 ② 여성, 노인, 아동 등 모든 사람을 위한 전 생애주기별 건강 관리 ③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신건강 증진
- 보건 도전(Health challenges) 극복을 통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 ① 보건재정 투자 및 인적 자원 강화 ② 암 예방과 치료 ③ 기후변화와 보건 : 원헬스, 항생제 내성, 인수공통감염병

□ 기타

- 주제와 우선순위에 대해 회원국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안내
- 2025 APEC 정상회의는 경주에서 개최 예정임을 안내
- 2025 APEC SOM 1은 경주 (2월 또는 3월), SOM 3은 인천에서 개최 예정임을 안내

6. 접근성 보장: 보편적 의료보장을 넘어

□ 대만

- NHI System (자택기반, 자택병원 프로그램 등) 소개 등 원격의료 및 디지털 기술을 통한 의료불균형 해결을 위한 노력 발표
- 원격 지역에 거주하는 신체장애가 있거나 응급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입식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의료보장 지원을 확립하기 전에, 치료 내부의 원격 진료 및 비효율적인 추천 시스템과 같은 전략을 통해 보편적 보장을 구현해야 함을 강조

□ 보편적 의료보장을 향하여 (HeSAy 북경대학교)

- 중국 내 장애인을 위한 보편적 의료보장에 관한 프로그램 및 정책 소개
 - 예방 및 통제 시스템 구축, 장애 예방 및 지식 전파, 선천적 장애 예방을 위한 검사와 예방 적용 범위 확대, 질병 장애 예방, 장애인을 위한 재활 서비스 등을 설명

□ 국별 발언

- 회원국들은 회복력 있는 보건의료체계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보편적 의료보장 강화를 위한 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
- 러시아는 인구가 희박한 지역과 재정착 전의 시민들과 대화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임을 설명
- 콜롬비아는 지역 기반 활동, 위험 및 피해 감소, 비범죄화, 약물 사용 예방, 사회적 보호 등에 대한 중점을 설명
- 베트남은 의료에 대한 예산 할당을 조정하고, 산간 지역, 섬 같은 지역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두고, 인구 밀도가 낮은 농촌 지역의 의료 인프라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
- 미국은 의료 접근성의 다면적인 과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회원국 전체 의료 시스템 개선 공동의 목표를 높이 평가함. 기술 혁신, 1차 진료에 대한 전략적 투자, 향상된 추천 시스템을 통해 불평등 해소를 설명
- 인도네시아는 지방 정부가 각 지역의 특정 요구에 맞춰 의료서비스를 관리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분산형 의료서비스 구축 설명
- 태국은 의료 인력 개발, 건강 정보 시스템 개선, 인프라 확장 및 지역 병원과 1차 의료 시설을 포함한 재택 시설 운영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음을 설명
- 브루나이 다루살람은 국가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중등 교육 병원을 위한 새로운 보건 센터의 계획 및 건설에 투자하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 노력에 관해 설명
- 일본은 금융 및 보건 당국 간 보편적 의료보장 협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계은행, WHO와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강조. 이에 일본은 정책 입안자와 금융 및 보건 당국을 위한 역량 구축을 제공하여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의 목표를 소개
- 말레이시아는 다양한 수준의 치료에 걸쳐 추천 및 문화적 추천 메커니즘을 개선하여 더 나은 환자 관리를 보장. 가상 진료소 등을 포함한 디지털 건강 이니셔티브는 혼잡을 줄이고 시간 절약과 효과적인 치료 제공을 촉진함을 설명

7. 폐회

□ 사무국

- 본 회의와 관련된 자료들은 APEC Database에 게재될 것이고 공유될 것을 안내

□ 의장

- 양일간의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회원국과 관계자들에게 사의를 표함

⑤

보건경제고위급회의

일 시	8.18.(일) 9:00~16:00
장 소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 Naciones 3
참석자	APEC 회원국, APEC 사무국, 국제기구 등

1. 개회

- 페루의 2024년 APEC HWG 우선순위
 - 2024 APEC 주제 설명: 권한부여(Empower), 포용 (Include), 성장 (Grow)
 - 중점과제: ① 포용적·상호 연계된 성장을 위한 무역투자 ② 공식·글로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혁신·디지털화 ③ 회복력 있는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
 - 에너지실무그룹에서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9년 만에 공동선언문 채택)하는 유의미한 시간 언급
- APEC 정책 지원 부서 (APEC Policy Support Unit)
 - 최근 팬데믹 동안 APEC은 공급망이 계속 열려 있도록 하고 팬데믹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설명
 - 여성이 상위 중요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직면한 과제, 건강에 대한 기후변화 위험, 예방 접종의 중요성, 지역 사회 정신건강의 중요성과 같은 매우 관련성 있는 문제를 다룰 것에 대한 중요성 설명
- ABAC 발언
 -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기존 국내 규제 프레임워크의 조화, 의료기기로서의 소프트웨어 승인 절차에 집중하여 안전성을 보장하고 업무 흐름을 간소화하며 소프트웨어와 기기의 효율성 개선 설명
 - 의료공급망에 투자하고 혁신적인 자금 조달 모델을 활용하여 전염병, 정신건강, 웰빙 및 비의학적 질병의 증가를 포함한 새로운 부상하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솔루션을 위한 부문 간 협력을 통해 회복력 있는 의료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 설명
 -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역 개방 촉구, 의료공급망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규제 조화 강조
 - 기업과 더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력하여 공급망이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장려의 필요성 설명
- WHO 발언
 - GDP 성장은 많은 혜택을 가져왔으나 도시화, 산업화, 소비주의의 증가로 인해 오염, 기후변화, 건강에 해로운 압, 식습관 및 심장병 발병률 증가, 미생물 내성 등을 초래함을 설명
 - 전염병으로 인해 사회, 경제, 기업과 생계에 심각한 혼란 방지를 위해 보건에 대한 투자는 필수성 강조
 -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와 경제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 설명
 - 여성을 위한 건강 서비스에 대한 투자, 자궁경부암 예방 및 치료 등, 성평등에 대한 투자, 깨끗한 에너지

지와 저탄소에 대한 투자 등은 기후변화의 속도와 그에 따른 건강에 대한 영향을 늦출 수 있음을 설명

2. 성과 건강

□ 여성의 보건 서비스 접근성 격차 해소 (세계은행)

- 페루 여성의 고용률은 61%로 77% 남성의 고용률에 뒤처지며 많은 여성은 여전히 가정에서 주부로 활동함을 설명
- 권고사항
 - 다부문적 (multi-sectoral) 접근, 교육과 보건 서비스를 통합한 통합적 접근,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 시장정책 추진, 정부 개입 보완, 젠더 폭력, 경제적 독립에 대한 전략적 실행 등 권고

□ 국별 발언

- 회원국들은 성과 건강이 주요 사안임에 동의하며 여성의 건강 및 보장을 위해 APEC 역내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에 동의하며 각 회원국의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소개
- 호주는 정부가 여성들의 성적, 생식적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전념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여성의 건강을 개선하고 사회와 경제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지원을 제공할 것을 표명
- 필리핀은 여성들이 건강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여성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해 설명하며 여성의 건강이 성평등, 사회 정의, 그리고 환자 중심의 더욱 진보적인 지역을 향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임을 강조
- 베트남은 의료 시설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정부의 우선순위 중 하나로, 도시와 농촌 지역에 관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의 필요성 강조
- 인도네시아는 여성의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여러 분야에 걸쳐 각료 파견을 설명. 여성들의 역량 강화는 공평한 건강 접근을 위한 필수 요소이며 성공 모델을 위한 인센티브 구축을 위한 APEC 역내 협력의 필요성 강조
- 칠레는 직장에서 여성과 소녀의 건강 접근을 방해하는 사회적 결정 요인을 해결하고자 노력함을 설명
- 대만은 자국의 성평등과 관련된 정책을 공유하며 정책 지침 수립 및 의료서비스 접근 장벽 해소의 중요성 강조
- 말레이시아는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해 더 많은 서비스 제공에 노력
- 일본은 여성의 출산을 위한 검진 등 의료서비스 접근 노력에 대한 자국 정책 소개
- 중국은 여성 건강 관리를 기본 공공보건 서비스에 포함시켜 도시 및 농촌 여성과 공공단체에 무료 서비스 제공, 여성과 아동 건강 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개선, 여성 및 아동 건강 서비스 역량 강화 지원 등을 소개

- 태국은 자궁경부암 예방 전략 노력에 관해 소개
- 미국은 성 및 생식 건강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자원 및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성 옹호, 여성 건강 장벽 해결을 위한 노력, 성평등을 위해 APEC 자궁경부암 로드맵 갱신의 필요성 강조
- 캐나다는 자국 성 생식 건강의 많은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한 10개년 공약 발표, 여성이 건강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직면할 수 있는 여러 장벽 인식 및 해결의 필요성 설명
- 브루나이 다루살람은 지역 사회 기반 개입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지도자들을 참여시켜 낙인에 대한 오해를 줄이고 여성의 건강, 교육 및 문해력을 강화하는데 노력을 설명
- 러시아는 모든 연령대의 여성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설명

3. 기후변화와 건강

□ 페루 보건부 차관

- 2023년 후반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해안과 정글에 위치한 여러 도시가 기록적인 고온을 겪음
- 전 세계적으로 덩기열 매개체의 분포 및 전파 위험 증가
- 식량 불안정, 정신건강 등 초래를 설명

□ 국별 발언

- 회원국들은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주요 이슈임에 동의하며 각 회원국의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소개
- 필리핀은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 폭염, 태풍, 홍수와 같은 극심한 기상 현상이 더욱 빈번해지고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을 설명하며 포괄적이고 다 부문적 접근을 통해 기후변화의 건강 영향에 적응하고 이를 완화하는 데 전념할 것임을 강조
- 한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복합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감시·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및 취약 인구 및 지역에 대한 다각적 지원, 위기 대응을 위한 회원국 간 모범사례 및 전문 지식 공유 등을 권고
- 캐나다는 기후변화는 현재의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위협 증폭 요인으로 간주됨을 강조
- 칠레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자국의 정책을 소개하며 APEC 회원국들의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의 영향을 해소할 것을 기대 표명
- 호주는 하나의 건강 원칙을 채택하도록 지원하고 평가하기 위해 감시 위험 시스템과 거버넌스, 운영 구조 강화
- 러시아는 극심한 기상 현상을 포함한 기후변화로 인한 의료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하위 지역 연구 촉진의 중요성 강조

- **베트남**은 역량 강화가 기후변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며 APEC 회원국뿐 아니라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 등 다자개발은행 등과의 협력 또한 기대
- **말레이시아**는 기후 관련 질병에 대한 감시 및 대응을 개선하여 특히 매개체 질병의 변화와 질병 패턴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데 전념하고 있음을 설명
- **미국**은 APEC 역내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활동에 투자 및 대비 필요를 강조
- **태국**은 스마트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학교 정책 도입, 에너지 절약, 원격의료 서비스 확대의 이니셔티브를 소개
- **인도네시아**는 지방 자치구와 도시 단위에서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나머지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 규모 기후 기반 시스템을 개발함을 소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순위 식별, 잠재적 파급효과 방지의 중요성 설명
- **브루나이 다루살람**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회복력 있는 보건 시스템 구축, 디지털 헬스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설명
- **대만**은 벡터 제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전문가 역량 강화 강조

4. 일차 의료 조치: 생애 전반에 걸친 예방 접종 및 지역 사회 정신건강

- 생애주기 면역 및 지역 사회 정신건강을 위한 일차 의료 (PAHO)
 - 효과적인 일차 의료 접근 방식은 모든 삶의 단계에서 일찍부터 요구를 충족하는 것이 중요. 일차 의료는 지역 사회의 참여를 통해 보건 시스템과 사회 내에서 회복력을 구축하고 건강 감시를 보장하며, 거주지의 미래에 맞게 조정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 일차 의료 접근 방식을 통해 필수적인 공중 보건 기능을 중심으로 통합된 건강 서비스를 구축하고 조직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에 힘을 실어주고 다 부문 정책 참여를 보장
 - 정신건강 관리를 일차 의료에 통합하기 위해 정신건강과 웰빙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정신 질환 치료에 대한 큰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필수적 전략과 “Recommendation 6” 권고
- 국별 발언
 - **미국**은 일차 의료는 모든 건강 시스템의 초석이며 개인의 평생 필요를 충족하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치료를 제공함. 면역 저하와 허위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대중 교육과 참여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팬데믹 기금의 중요성 언급
 - **러시아**는 예방 접종은 일차 의료의 필수 요소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중요성 강조
 - **칠레**는 바이러스 백신을 포함한 새로운 도구의 평가 및 확대와 예방 접종의 모범사례에 대한 의료진 교육 제공을 설명
 - **베트남**은 건강과 예방 접종에 대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과를 계속 유지하고 예

방 접종의 질과 형평성 제고의 필요성 언급. 정부와 모든 기관으로부터 정치적 의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장기적 예방 접종을 지속 강조하며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과 로드맵 개발의 필요성 설명

- 인도네시아는 모든 단계에서 공평한 예방 접종 범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용성, 접근성, 다양한 부문 간의 협력과 자금 조달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필수임을 강조
- 대만은 정신건강을 위한 지속적인 치료와 네트워크, 우선순위를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71개의 지역 정신건강 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며, 고위험 사례에 대한 치료를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다른 APEC 회원국과 우수사례 교환을 지속해 나갈 것을 언급
- 캐나다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일차 의료로 만들고 건강과 환경의 사회적, 구조적 결정 요인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보편적 의료보장에 대한 포괄적 관점을 지지
- 일본은 정부, 지자체, 의료인들과 협력하여 예방 접종과 일차 의료를 통한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기대
- 한국은 일차보건의료의 강화는 질병의 예방적 관리와 조기 탐지를 통해 국민의 건강 보호와 향상에 기여. 공평한 예방 접종을 보장하는 것은 국민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중요함을 언급
- 싱가포르의 일차 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사회의 지원을 동원하는 것의 지속성 강조
- 말레이시아는 일차 의료를 강화하고, 정신건강을 일차 의료서비스에 통합하는 것의 중요성 강조
- 홍콩은 일차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고 예방 중심, 가족 중심, 지역 사회 기반 건강 관리를 촉진하는 일련의 개혁 이니셔티브를 수립하였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중시하고 장려
- 태국은 생애 주기에 걸친 공평한 의료 접근성 보장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서비스를 통해 모든 사람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
- 중국은 포괄적 조치를 강조하며 저소득 및 중산층이 필요한 예방 접종의 필요성 설명
- 필리핀은 일차 의료를 우선시하고, 기본 건강 요구를 해결하는 데 사람 중심의 다 부문적 접근 방식을 강조하며 회원국과의 활발한 논의에 대한 기대를 표명

5. 보건경제고위급회의 공동선언문 승인

6. 2025 APEC 우선순위

□ 2025 APEC 보건분야 주제 및 우선순위 초안

- 상호연결성(interconnection) 증진을 통한 미래 팬데믹 대응
 - ① 제약·바이오 민관 파트너십 및 공급망 강화 ② 의약품, 백신, 의료기기 등 혁신 및 글로벌 협력 ③ 미래 팬데믹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

○ 모든 사람을 위한 혁신적(innovative) 보건 서비스 : 디지털과 건강

- ①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한 디지털 헬스 ② 여성, 노인, 아동 등 모든 사람을 위한 전 생애주기별 건강 관리 ③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신건강 증진

○ 보건 도전(Health challenges) 극복을 통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 ① 보건재정 투자 및 인적 자원 강화 ② 암 예방과 치료 ③ 기후변화와 보건 : 원헬스, 항생제 내성, 인수공통감염병

7. 폐회

□ 페루 보건부 장관

- 회원국들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참여와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본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어 기쁘며 25년도에 한국에서 만나기를 고대



